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1. 9. 9.(목) 총 5매(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 과장 안용운, 사무관 전진배, 주무관 장해중 • ☎ 044)200-5550, 044)200-5526, 5527		
보도일시		2021년 9월 10일(금) 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0.(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 조업어선 안전 강화한다

- 조업 어선 위치 확인 등 남해안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체 등록어선의 약 20%(13,850척)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7월 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개국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국식을 생략하고 해상교통 안전관리 운영을 시작하였다.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기존 동·서·남해안에 19개 지역별로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해 왔고, 이번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전국 20개 지역별로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위치 확인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시 해경 및 관계기관, 조업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급증한 해상통신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해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하게 되었다.

* 무선설비 설치대상(5톤→2톤) 확대(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 제72조 개정, '15.2.26)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은 20번째 지역 어선안전조업국으로, 국고 25억 원, 수협 자부담 5억 원 등 총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연면적 803㎡(243평) 규모로 준공되었다. 내부에는 통신실, 상황실,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 봉사실 등 해상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들을 두루 갖췄다.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의 관할 행정구역은 경남 창원시와 거제시이며,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조업어선 안전 조업지도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 △태풍 등 재해 예방·대응 △해상통합방위 지원사업 △어업인의 안전조업교육 등을 수행한다. 특히, 기존 통영어선안전조업국에서 관리하던 어선 9,775척 중 5,144척을 이관 받아 더욱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창원어선안전조업국 신설로 남해안에서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 시스템(FIS) 운영과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위치발신장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신속한 조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9.16~'21.5.23(8개월)
- 사업비 : 총 30억(국비 25억, 수협 자부담 5억)
- 신설부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82
- 청사규모 : 부지 2,752㎡(832평), 건물 803㎡(243평, 2층)
 - * 1층 : 어업인교육장, 안전체험관 등, 2층 : 통신실, 상황실 등
- 주요 통신시설
 - 창원어선안전조업국(수신소) : VHF, SSB(2MHz, 4MHz, 8MHz, 27MHz)
 - 중계소 : 거제, 대봉산
- 운용인력 : 총 10명(안전국장 1명, 직원 9명)
- 업무관할
 - 어선세력 : 5,144척
 - 업무구역 : 경남 창원시, 거제시
 - 회원조합 : 마산, 부경신항, 진해, 패류살포양식, 창원서부, 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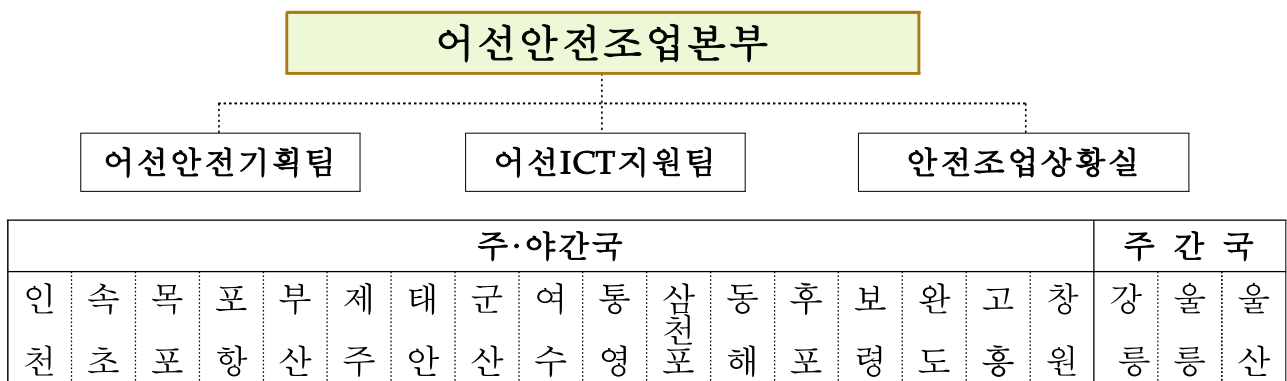
□ 시설물 사진



□ 현황

- 조직 : 21국(본부 1, 안전국 20), 중계소 등 63개소
- 인원 : 정원(238명), 현원(227명)
- 예산 : 19,103백만원('22년 예산안 : 18,436백만원)
- 위탁사무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 조업정보의 제공
 -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 해상통합방위 지원
 - 한·일,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조업어선 관리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시스템 운영
 -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조직도 >



참고 3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통신망 현황(운영 21국, 중계소 등 63개)

